

리브라, 정부의 화폐 그리고 시민의 화폐¹

홍은표

1. 리브라는 기업의 화폐

비트코인 등 비허가형 블록체인이 실생활에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발전이 더디고 개인키 보관이 번거로우며 전송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코인의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더 불행한 것은 그에 따라 걸맞는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브라는 이러한 비허가형 블록체인의 단점을 파고 들며 편리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정부의 화폐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비트코인이 시민의 화폐로 등장하였다. 시민의 화폐가 지지부진한 사이에 그 단점을 극복하려는 기업의 화폐가 등장한 것이다. 블록체인의 가치는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시민의 화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가치를 기업의 화폐 특히 리브라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까지의 리브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개방, 차별 없음, 탈중앙화, 참여자에 대한 가치의 공평한 분배, 프라이버시 등을 가져다 줄 수 없다. 리브라 프로젝트가 백서에 화려한 비전으로 진정한 의도를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폐쇄적, 중앙화, 독점,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리브라의 성공가능성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리브라 또는 유사한 모델이 등장하여 기업의 화폐는 자신이 원했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돈을 송금하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유사하다(Posner). 정보화 사회가 고도화 됨에 따라 사회의 부, 가치가 디지털 정보의 형태로 전환되고 정보 자체가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Fairfield). 인터넷 기업들은 정보의 생성과 유통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이다. 정보를 다루어 사업을 하는 데에는 금융기관이 따라가기 어렵다. 돈이 정보이고, 금융도 정보인 세상이다. 정보를 가장 잘 다루는 인터넷 기업에게는 돈과 금융도 매우 손 쉽게 다룰 수 있는 대상이다. 인터넷 기업이 금융기관보다 금융산업에서도 더 유리할 수 있는 이유이다. 화폐의 발행과 유통, 결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격히 줄어들고 각 단계에서 정보비대칭으로 발생하던 이익도 줄어들고 있다. 페이스북은 23억명에 달하는 막대한 자신의 사용자층과 리브라 협회에 참여할 회원사의 사용자층을 모두 끌어들이 화폐의 발행, 유통, 결제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 유리한 지위에 있다. 소셜네트워크 구조와 금융 네트워크 구조는 유사하다. 돈을 송금하는 것은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나 사진을 보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어떤 은행보다 고객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고

¹ 블록체인법학회 세미나(리브라 노믹스와 디지털 경제의 미래)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의문점이나 개선을 위한 제안이 있으시면 hong7404@gmail.com으로 연락바랍니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리브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소비자가 사용하기 쉬운 제품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세계적인 금융사업을 하기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각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규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화폐와 결제, 송금, 증권, 은행 업무에는 각국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리브라는 규제를 회피하거나 규제에 순응하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둠으로써 다양한 규제장벽을 넘어설 여지를 만들어 두고 있다. 탈중앙화 시스템을 채택하면 규제가 어려워 지지만 기업이 수익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다. 중앙화 시스템을 택하면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지지만 기업이 수익을 만들어내기는 편리해진다. 리브라는 중앙화되어있으며 동시에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선언한다. 블록체인, 정확히는 분산형 원장(DLT)을 사용하여 분산화 노드를 두어 탈중앙화를 추구하지만 리브라 협회(Libra Assciation)를 구성하여 중앙화를 추구한다(Posner). 사실 리브라는 어느 쪽인지 명확히 하지 않고 양쪽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 리브라는 왜 페이팔, 카카오페이, 위챗페이를 만들지 않고 분산형 원장과 리브라 협회를 만들었을까. 리브라는 허가형이기는 하지만 분산화된 노드를 구성함으로써 규제를 회피하는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지만 단일한 리브라 협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설립은 미국이 아닌 스위스에 되어 있다. 페이스북이 자본과 법률가들의 도움을 받아 규제 허들을 넘은 다음에는 그 규제 허들은 후발 주자들이 다시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리브라 리저브(Libra Reserve)의 구성방법지에 따라 달러 독점을 회피할 수 있고 정부화폐를 헷지할 수 있다. 따라서 달러의 기축통화화에 반대하는 국가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리브라 리저브는 달러화 가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달러화와는 변동되는 가치(floating point)를 가지고 있다. 화폐의 지배력은 본원통화뿐만아니라 신용통화로부터 비롯된다. 많은 사람들이 리브라를 사용한다면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조절이 신용통화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어 따라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Grégory). 그에 따라 달러발행자인 미국의 통화정책의 힘이 약해질 수 있고 이는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이유가 된다. 반면 개발도상국의 화폐 보유자들은 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 우려될 때 리브라를 구입함으로써 환위험을 헷지할 수 있다.

3. 리브라의 한계

리브라를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모델로 보기는 어렵다.

리브라의 비즈니스 모델이 불분명하다.

페이스북은 공자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 사용자 모르게 이윤을 취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취하였다(Posner). 저커버그는 그의 나이에서 인류에 가장 큰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까지 묘사된다(Moglen). 구체적으로 리브라를 통해 어떤 수익모델을 추구할지 모르지만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리브라는 리저브에 축적된 자금을 운영하거나 위험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노릴 수 있는데 이를 막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리브라 협회 재판매자는 리브라를 판매하면서 사려는 측과 팔려는 측의 스프레드를 활용하여 막대한 이윤을 축적할 수도 있다. 페이스북은 규제 순응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페이스북과 KYC가 결합되면 모든 가입자에 대한 자세한 신상을 파악하게 되고 소비와 구매내역, 자산의 보유정도, 흐름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는 보다 정밀한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다. 사용자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구축은 사용자에 대한 보다 우월한 통제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 우월한 통제력을 바탕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할지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힘들다.

리브라는 은행의 해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행해택을 제공하는 포용적 금융이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페이스북은 무료 인터넷을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게 자신이 곧 인터넷이라는 관념을 심으려고 노력한 바 있다. 저렴한 금융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곧 인터넷의 화폐이고 은행이라는 관념을 심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페이스북은 소셜미디어에서의 지배력을 그대로 금융영역에 가지고 갈 것이 명확하다. 페이스북은 중앙집중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이러한 기업이 화폐발행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리브라 리저브는 마치 IMF의 SDR과 비슷하다. 여러나라의 화폐로 통화바스켓, 리저브를 만들고 그로부터 리브라의 가치를 유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IMF는 곤경에 처한 나라에게 SDR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그러나 공짜 점심은 없었다. 금융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개방의 길을 걷도록 압박하였다. 리브라는 통화 가치가 약한 나라들에게 IMF와 비슷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인구의 상당수가 리브라 리저브에 통화를 넣은 나라들은 페이스북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상당한 공공자산을 넘겨 주게 될 수 있다(Antonopoulos). 이윤 추구 기업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다시 되짚어 보아야 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다.

리브라는 포용적 금융을 내세우면서도 비포용적 거버넌스 모델을 택하고 있다.

리브라 의회(Libra Council)에 소프트웨어 개발, 리저브 운영 등 대부분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심지어는 리브라 의회는 거버넌스 구조 자체도 바꿀 있다. 그럼에도 리브라 의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요구한다. 창립멤버가 되려면 10억달러 이상 시장 가치, 2,000만명 이상 다국적 고객, 100개 상위 기업 등의 조건 중 적어도 2개를 충족해야 하는 식이다. 그러한 자격을 갖춘 다음 1,000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요구한다. 새로운 노드 구성원이 되려면 창립멤버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데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자격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리브라의 합의 알고리즘은 LibraBFT를 채택하고 있는데 처리 속도를 높인 대신 적어도 ⅓ 이상의 노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노드(또는 밸리데이터)의 자격에 제한을 둘 가능성도 크다.

리브라는 어느 정도 오픈되어 있지만 탈중앙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리브라 협회는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섬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리브라 의회의 의사결정은 1,000만달러 투자마다 1표를 주고 투표권의 $\frac{2}{3}$ 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각 구성원마다 1표 또는 의견권 1% 제한을 두어 페이스북에 의한 전횡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리브라 협회는 탈중앙화에는 이르지 못하는데 이는 거래속도나 개발과정의 신속성을 추구하고 사업 단계마다 상황에 맞는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리브라는 분산형 원장(DLT) 기술을 도입한다. 처음에는 허가형 노드 구조로 운영된다. 허가형 블록체인은 결국 1개의 기업이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구조로 운영될 수 있다. 백서는 이를 점진적으로 개방형으로 전환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한 바가 없다. 설령 비허가형 노드로 변경되어도 모든 부와 가치는 리저브에 저장되어 있다. 리브라 협회가 독점적으로 리저브를 관리하는데 리저브를 관리하는 자가 전체 부를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비허가형 노드로 변경되어도 리브라 협회는 노드 관리에 대한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 이익만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리브라 협회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유지하는 핵심인 리저브를 단독으로 관리한다. 백서는 리브라 협회를 비영리단체라고 하지만 동시에 협회사에게 이윤을 배분한다고 하여 어떤 의미의 비영리단체인지 명확하지 않다(Zetzsche). 리브라 협회가 리저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리브라 협회의 의사결정은 투표권의 $\frac{2}{3}$ 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각 구성원마다 1% 제한이 있으므로 실제 투자비율과 무관하게 작은 투자자들이 거대 투자자 등과 결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페이스북이 협회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Zetzsche). 각각의 노드 운영자 즉 리브라 의회 구성원들이 별도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보장도 없다. 어떤 구성원이 명목상 다른 구성원과 별도의 회사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투자집단의 영향을 받는다면 같은 이해관계를 반영할 경우 이를 견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충분히 분산화 되지 못한 결과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국가가 리브라 협회 또는 지갑 업체에 특정 개인의 지갑을 삭제하거나 동결을 명하였다면 리브라 협회는 이에 순응할 가능성이 크다. 페이스북의 마커스는 의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온체인 행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금융범죄를 모니터링하는 기회를 증가시킬 것이고 리브라 네트워크는 감춰진 거래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리브라 백서는 개인의 인권을 지키고 탈중앙화를 달성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사업모델에 반영한 바가 없다. 리브라 백서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이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사용자들이 칼리브라 지갑을 통해서 얼마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리브라 협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결정이 이루어지고 리브라 사용자나 이용자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리브라 협회 구성원이 되기는 쉽지 않으며 일정한 규모의 기업만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므로 협회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해서 운영될 것이다. 협회 구성원에는 일부 비영리단체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들이므로 이윤추구가 최우선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리브라 협회는 단일 기업이 추진할 수 없는 비즈니스 즉 기업의 통화를 시도하므로 그에 따른 신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을 참여시킬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거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초거대기업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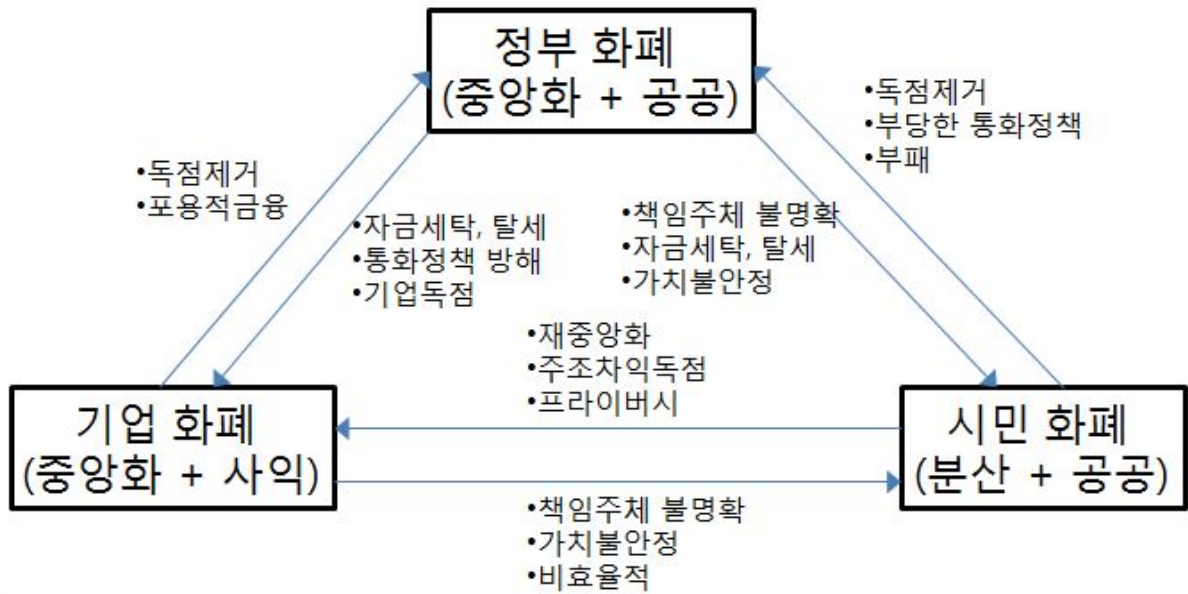
사용자는 리브라 협회나 어떤 통로로도 관여할 여지가 없다. 리브라 협회의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땅치 않다. 리브라 토큰을 보유한다고 해도 리브라 협회 외부에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될 뿐이다. 저렴한 송금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가치를 추구할 여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리브라가 커나감에 따른 혜택도 사용자에게 배분되지 않는다. 리브라 협회사의 이윤, 투자 대비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이 평가될 것이 거의 명확해 보인다.

리브라와 같은 기업의 화폐 모델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나라는 기업형 블록체인보다는 비허가형 블록체인의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물론 한국도 기업의 화폐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자본력과 사용인구의 한계로 한국 단일 기업이 리브라 등에 대항해서 전세계적인 비즈니스를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비허가형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전 세계인들과 연합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다. 한국은 인터넷 초창기에 네이버, 카카오 등의 국내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지는 못했지만 국내시장을 어느 정도 잘 방어하였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오픈소스 정신과 문화가 충실히 도입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전세계 개발자들, 사용자들과 연대해서 훌륭한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여 좀더 세계적인 기업 또는 서비스가 탄생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픈소스의 결과물과 비즈니스, 라이선스만 들어오고 근본적인 정신과 문화는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에서도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블록체인의 문화와 근본 정신을 받아들여 전세계인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하게 블록체인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4. 정부의 화폐, 기업의 화폐, 시민의 화폐

기업의 화폐는 개방, 차별 없음, 탈중앙화, 참여자에 대한 가치의 공평한 분배, 프라이버시 등을 가져다 주기 어렵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에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업의 화폐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요구된다. 향후 인터넷 통화 시대는 정부의 화폐, 기업의 화폐, 시민의 화폐가 서로 경쟁하며 각자의 영역을 넓혀 가려고 할 것이다(Antonopoulos). 각각의 화폐는 장점과 함께 약점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화폐 성공여부는 시민의 화폐가 가지는 단점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시민의 화폐의 성공여부도 기업의 화폐가 가지는 단점을 얼마나 잘 극복하는지에 달려있다. 이를 도표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화폐는 규제에 순응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화폐와 융합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인다. 예를 들면 중앙은행은 결제기능만을 담당하되 민간 전자 화폐 발행자를 중앙은행 준비금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모든 다른 기능은 민간 전자화폐 발행자에게 주는 sCDBC가 발행될 가능성도 있다(IMF 보고서). 마치 정부와 은행이라는 민간 기업이 결합하여 본원통화와 신용통화로 이루어지는 현대 통화시스템을 만들어 내었듯이 정부와 은행 및 IT 기업이 결합하여 새로운 통화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전세계적으로 발행 유통되는 기업 화폐에 대응해서 국제 협약에 기반한 세계정부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가능성도 조급스럽게 점쳐 본다(Zetzsche).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기업의 화폐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대응으로 미래 혁신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Rainey). 거대 기업은 규제를 준수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크므로 그러한 과도한 대응은 시민의 화폐에 대한 규제만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화폐가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정부의 화폐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때에만 정당화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리브라의 출현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화폐가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화폐는 한계가 있다. 그 단점을 시민의 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리브라는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결국은 시민의 화폐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더욱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만약 리브라가 국가의 개입으로 실패한다면 시민의 화폐 가치는 보다 높아질 것이다. 개인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폭이 얼마나 넓은지에 달려있다. 정부의 화폐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때에만 정당화된다. 정부의 화폐가 아닌 기업의 화폐, 시민의 화폐도 서로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 한다면 화폐와 관련한 개인의 자유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Rainey Reitman, Could Regulatory Backlash Entrench Facebook's New Cryptocurrency Libra?, EFF, JULY 10, 2019

Eric Posner, The Trouble Starts If Facebook's New Currency Succeeds, The Atlantic, JUN 25, 2019

the Libra Association Members, An Introduction to Libra, White Paper(https://libra.org/en-US/wp-content/uploads/sites/23/2019/06/LibraWhitePaper_en_US.pdf),

Dirk a Zetsche, Ross P Buckey and Douglas W Arner, Regulating LIBRA: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Facebook's Cryptocurrency and Possible Regulatory Responses,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Law Research Series,

Tobias Adrian and Tommaso Mancini-Griffoli, The Rise of Digital Money, IMF, July 2019

Claeys Grégory, Maria Demertzis, and Konstantinos Efstathiou, Cryptocurrencies and Monetary Policy, 2018.

Andreas M. Antonopoulos, Libre Not Libra: Facebook's Blockchain Project, Jul 7, 2019, , <https://www.youtube.com/watch?v=7S6506vkt4>

Fairfield, BitProperty, 88 S. CAL. L. REV. 805, 826–827 (2014)

Eben Moglen, Freedom In the Cloud: Software Freedom, Privacy, and Security for Web 2.0 and Cloud Computing, at a meeting of the Internet Society's New York branch on Feb 5, 2010